

자국어에 만만치 않은 자부심을 품고 있는 나라를 꼽으라면 우리는 먼저 프랑스를 떠올리게 된다. 프랑스 말로 새롭게 등극한 단어를 정기적으로 공지하는 등 프랑스 말을 보호하는데 프랑스 정부와 국민들이 기울이는 노력은 깊고 열정적이다. 그런 프랑스에서 프랑스어 사전이 나온다면 거기에 들이는 공이 어떨지 가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2001년을 마감할 무렵 프랑스에서는 획기적인 판형의 새로운 프랑스어 대사전이 출간됐다. 르 로베르(Le Robert) 출판사에서 출간된 6권 짜리 《로베르 프랑스어 대사전》이 그것이다.

사람들이 즐겨 쓰는 '입말' 많이 실어

초판 2만질을 찍은 이 사전은 서점에 출시하기에 앞서 예약 판매로만 1만 5천질이 나가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곧 재판으로 2만질을 다시 찍는다고 하니, 이 사전의 모태 격인 1985년 판 9권 짜리 《로베르 대사전》이 지난 15년 동안 3만 질이 팔렸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성공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인터넷과 CD-롬 사전 시대에 종이 인쇄 사전이 이렇게 팔린다는 것은 그 누구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1985년 판과 비교해 어떤 면이 달라졌기에 이런 기록이 가능했던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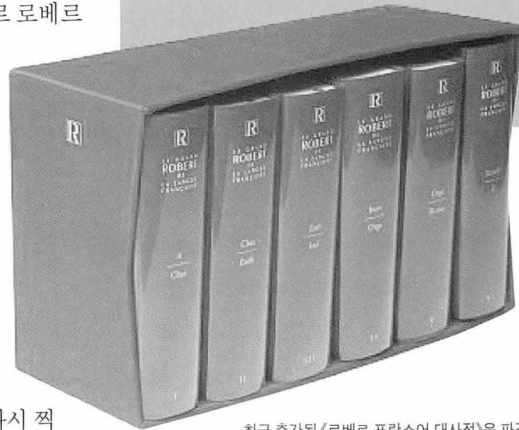
《로베르 프랑스어 사전》은 《라루스 프랑스어 사전》과 함께 프랑스어에 대한 대표적인 사전으로 꼽힌다. 특히, 《로베르 사전》은 입말 표현이 풍부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에도 그런 전통이 유감 없이 드러났다. 스물다섯 살부터 시작해 50년 이상을 사전 작업에만 매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호기 있게 말하는 알랭 레(Alain Rey)를 필두로 한 편찬진들은 1985년 이후 비약적으로 늘어난 정보 통신 및 인터넷 관련 용어들을 수용하는데 매우 적극적이었다. 가령, 그들은 '가라오케' 등의 일본어 표현과 '포켓몬' 이니 '스머프' 니 하는 만화 캐릭터의 이름도 과감히 수록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다른 더 중요한 어휘를 제쳐두고 지나치게 사소한 어휘에 치중한

대중화의 가능성 보여준 프랑스의 '사전마케팅'

새로운 판형의 프랑스어 대사전 출간

장석훈 | 출판기획자 · 번역가



최근 출간된 《로베르 프랑스어 대사전》은 파격적인 어휘 수록과 장정, 판형, 가격으로 대중화에 성공했다. 사진은 전질 모습.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알랭 레는 사전을 만드는 사람에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어휘는 없고 모두가 똑같이 소중한다는 것을 먼저 못 박은 뒤 새로운 어휘는 그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보편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되받았다. 그런데 이 사전은 2천개의 표제어가 추가되고, 4천개의 새로운 풀이가 수록된 것 외에는 내용면에서 그리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편찬 작업을 총지휘한 알랭 레가 인정하고 있듯 10년 정도의 시간으로 9권 분량의 대사전을 전면 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담한 판형에 아름다운 케이스로 눈길 끌어

오히려 이 사전을 결정적인 것으로 만들어놓은 요소는 사전 속도보다 곁에 있다. 총 6권에 각권 2,240쪽의 이 사전은 우아한 빛깔의 빨간색 천 장정으로 만들어졌으며 이전 판본에 비해 크기도 아담해지고 역시나 아름다운 빨간색의 케이스에 정돈됐다. 그리고 얇게 찰랑거리는 고운 상아빛 종이 위에 새로운 기술의

활판 인쇄술로 텍스트를 가지런히 찍어놓았다. 우중충하고 위압적인 걸모습과 법전을 펼친 듯 읽는 이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인쇄된 기존의 사전에 비하면 이 사전에서는 아름다운 식위가 튀어나올 것 같다.

그리고 또 한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사전 속도 곁도 아닌 전혀 다른 데 있다. 프랑스에서는 백과사전 및 대사전 등의 책은 서점이 아닌 중간 판매상을 통해 판매됐다. 그것은 권당 6천 프랑 가까이 되는 책들을 서점에서 유통시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 대사전은 권당 2천 6백 프랑의 가격이 매겨져 기존의 유통 관행과 달리 서점에서도 바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특징들을 종합해본다면 결국 이번 《로베르 프랑스어 대사전》의 인기 비결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혹은 이용하고 싶도록 만들어졌다는 데 있을 것 같다. 아닌 게 아니라 알랭 레가 한마디한다.

“저는 서가에만 꽂혀 있는 대형 사전을 사람들과 가까이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이 다루기도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야겠죠.” ■